

“페퍼스 ‘넘버원 팬’ 자부심...최고의 팀 만드는 게 목표”



페퍼 스타디움에서 만난 사람
장 매튜 AI페퍼스 구단주

“이럴 줄 알았으면 인터뷰를 좀 더 일찍할 걸 그랬어요. 하하”

지난 12일 광주시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만난 장 매튜(사진) 광주 AI페퍼스 구단주는 인터뷰 도중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다. “저기 보세요. 지금 이기고 있어요. 선수들이 살아났나니까요. 다음에도 꼭 만나서 인터뷰 합시다.” 광주 AI페퍼스가 이날도 IBK기업은행에 2세트를 먼저 내주고 패색이 짙었다. 광주일보와 인터뷰가 시작된 3세트에서 모처럼 5-3으로 리드를 잡은 뒤 아웃사이드 히터(레프트) 박은서의 스파이크 서브로 득점해 6-3까지 스코어를 벌린 뒤 3세트를 따냈다. 장 구단주는 어린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광주 AI페퍼스 넘버원 팬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에 바쁘기도 하지만 시간나면 언제든지 구장을 찾아 응원할 겁니다.”

AI페퍼스는 17일 현재 7연패 중이다. 지난해 창단해 기적 같은 3승을 올렸지만 불명예 기록 1위에

패배 습관 되면 경기하기 어려워
앞으론 이기는 것 익숙해졌으면
열정으로 감동 주는 팀 변모 기대
창단 당시 3년 후 봄 배구 목표
좋은 선수 있으면 언제든지 영입
유소년 배구 육성 등 지속적 투자

도 올라 있다. 정규리그, 포스트시즌을 통틀어 V리그 여자부 최다인 16연패, 역대 통산 최다 여웨이연패(16연패) 기록도 경신 중이다.

“시합전 선수들을 만나 1라운드 마지막 게임이니 만큼 패배의식을 떨쳐내고 팬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자고 당부했습니다. 패배가 습관이되면 경기를 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이기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하지만 선수들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부담을 떨쳐내고 이겨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도 당부했습니다.”

AI 페퍼스는 창단 첫 해 유망 선수들을 끌어모으

지 않고 젊은 선수들을 택했다. 역동적이고 새로운 팀 컬러 구축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이다. 젊은 선수로 팀을 꾸리다보니 이들에게 당장 성적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들은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창단 당시 3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첫 해 팀을 만든 뒤 이듬해 팀을 업그레이드 하고 3년째 ‘봄 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AI 페퍼스가 팬과 광주시민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경기에서 즐거움을 드리고 열정으로 감동을 주는 팀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AI페퍼스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장 구단주는 최근 구단이 이재영을 만난 것은 단지 상황과 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은 한때 한국 여자배구를 대표하는 스타였지만, 확장 시절 폭력 가해 논란으로 국내 무대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페퍼스의 접촉설이 나오자 일부 팬들은 복귀 반대 등 시위를 하기도 했다.

“최고 팀을 만드는 게 구단의 목표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선수, 좋은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재영은 그런 차원에서 접촉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등 스스로 풀어야 할 난제가 한

두 개 아니지요. 언론에서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장 구단주가 대표를 맡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은 영업 점포망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광주를 연구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광주시, 광주시배구협회,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광주 연구구단 유치에 나서지만 그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창단 첫해 페퍼저축은행은 광주배구 인제 양성 후원금 1억원을 쾌척했다. 장 구단주는 아파트 붕괴 사고 피해가족을 위해 성금 1억원을 기탁하는 등 광주와 함께 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배구 인제 양성을 위해 유소년 배구팀을 지원, 운영하고 있다. 페퍼스타디움도 새단장했다. 경기장 내 20mx6m 사이즈 초대형 고화질 LED 모니터 등을 설치했다. 이는 국내 배구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AI 페퍼스는 광주 연구 프로배구팀입니다. 그에 걸맞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고 유소년 배구 육성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페퍼스타디움 리뉴얼도 경기장을 찾는 배구팬들이 더욱 다채롭고 뜻깊은 관람 경험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팬을 위해 다양한 관람 기회와 이벤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도루왕 박찬호



퓨처스리그 평균자책점 1위 김기훈



퓨처스리그 타율 1위 최원준



MVP 이정후 /연합뉴스

제3차 전남모터페스티벌 19~20일 영암에서 개최

전남개발공사가 19일부터 이틀간 영암에 위치한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2022년 제3차 전남모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제3차 전남모터페스티벌은 전국 베스트튜닝카 선발전, 듀에슬론 대회, 이색 스포츠카, 캠핑카 전시와 더불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클래식 전기카트, 서킷텍시, 강릉기차 등 5월과 7월에 개최된 1, 2차 보다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도의 후원으로 전남개발공사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전남모터페스티벌’은 연 3회 개최하는데, 모터스포츠와 레저스포츠를 접목해 지역민들과 관람객, 모터스포츠인 등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는 아마추어 레이서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KIC-CUP 투어링카 레이싱 4라운드가 열려 자동차 150여 대, 바이크 200여 대 등이 참가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모터페스티벌은 여느 해보다 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준비했으며, 향후 국제자동차경주장이 레이싱 대회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해 다양한 모터스포츠와 레저스포츠 등이 어울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지역 명소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루왕’ 박찬호 KIA 유일 수상...“타이거즈 분발 필요해”

KBO 시상식...퓨처스리그 김기훈 평균자책점·최원준 타율 1위
‘타격 5관왕’ 이정후 MVP 선정...한미일 최초 ‘부자 MVP’ 등극

올 시즌을 ‘70점’이라고 평가한 박찬호가 두 번째 KBO 시상대에 섰다.

2022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이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가장 좋은 활약을 선보인 MVP와 신인상이 발표된 이날 부문별 1위 선수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면서 ‘도루왕’ 박찬호가 정장 차림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박찬호는 올 시즌 42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지난 2019년(39개)에 이어 두 번째 수상에 성공했다. 퓨처스리그를 제외하고는 올 시즌 KIA 유일의 ‘타이틀 홀더’이기도 하다.

박찬호는 “조재영 코치님, 전력분석팀에서 만들어준 바탕에 몸만 얹은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몫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함께 뛰던 팀원에게 공을 돌린 뒤 “구르고 넘어지고 부

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상을 받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며 “올 시즌 시작할 때 여기 시상식에 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오게 돼서 좋다. 복무기간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더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고 싶고, 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에 다시 시상식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무에서 복무 중인 외야수 최원준도 단상에 올라 오랜만에 KIA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최원준은 올 시즌 92경기에 출전해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타율 1위(0.382)를 기록했다.

“충성을 외친 최원준은 “응원과 기다려주시는 KIA 팬분들과 가족에게 감사하다. 매년 이런 시상식에 좋은 선수들과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 같이 고생하고 노력하는 퓨처스리그 선수들을 위해서 상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타격 5관왕’ 키움 이정후가 압도적인 표차로 MVP가 되면서, 한미일 프로야구 최초 부자(父子) MVP가 탄생했다.

이정후는 취재기자단 투표 결과 유효표 107표 중 104표를 얻으면서 올 시즌을 끝으로 롯데에서 은퇴한 이대호(2표), 강속구 우완 안우진(키움·1표)을 따돌리고 첫 MVP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부자 MVP’라는 대기록이 만들어졌다. 이정후의 아버지인 이종범은 1994년 해태 소속으로 MVP 트로피를 차지했었다.

이날 수상으로 이정후는 류현진(토론토), 서건창(LG)에 이어 KBO리그 사상 세 번째로 신인왕과 MVP를 모두 석권한 선수가 됐다.

신인상은 ‘5년 차 신인’ 두산 우완 정철원에게 돌아갔다.

2018년 두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정철원은 육군 포병으로 현역 입대해 뒤 지난해 제대했고, 올 시즌 1군 58경기에 나와 72.2이닝을 소화하면서 4승 3패 3세이브 23홀드 평균자책점 3.10의 성적을 기록했다.

정철원은 유효표 107표 중 74표를 얻으며 한화 ‘홈런 타자’ 김민환(24표)을 따돌리고 ‘신인왕’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러시아·벨라루스 회원자격 정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17일(한국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의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

IP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러시아, 벨라루스의 회원 자격 정지 투표를 진행했으며, 러시아 자격 정지 안건은 찬성 64 대 반대 39, 벨라루스 자격 정지 안건은 찬성 54 대 반대 45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향후 IPC가 주관하는 모든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데시벨
2관	데시벨
3관	홀: 600미터, 자백
4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5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극장판 썬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막역학교
6관	동감
9관	동감
7관 씨네커튼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심야카페: 미성 허니
8관 씨네커튼	한산 리덕스, 김달2: 아득한 대지로, 극장판 썬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막역학교, 인생은 아름다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뷔에르 앙상블
일시: 2022. 11. 21.(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모래 시리즈 1
피노키오
일시: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613-8246